

전남

전남 '사이버 농업인' 크게 늘었다

“토종마늘은 알이 잘라 중간상인이 가져가려 하지 않고 가격을 쳐주지 않더라. 어릴 적 맛을 본 도시 소비자들은 향이 좋아 인터넷에서 한 접당 2만원에 사갑니다”

지난 1999년 귀농한 정효영(52·해남군 송지면)씨는 초창기에 버섯재배에 나섰으나 재배기술부족과 판로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실패를 거듭했다. 그러다 뒤늦게 지난 2007년부터 전남도 농업기술원 주관의 정보화교육과 e-비즈니스 교육을 받으면서 전자상거래에 눈을 뜨게 돼 홈페이지(www.팔팔농장.kr)를 개설했다.

지난해 가을 일반 유통과정으로 출하했으면 80만원 정도에 불과했을 절임배추 2천400포기를 인터넷 판매로 500만원의 수익을 올리면서 전자상거래의 위력을 실감했다.

자신이 생산한 농산물을 전자 상

농산물 쇼핑몰 2000년 8개서 480여개로 증가

소비자와 직거래로 유통비용 줄고 소득 '쑥쑥'

를 통해 도시소비자들에게 직거래 판매하는 전남 '사이버 농업인'들이 늘고 있다.

전남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26일 현재 전남지역에 480여개의 농산물 판매 쇼핑몰이 개설돼 있고, 이중 10~20%가 활발히 운영돼 상당한 수익을 내고 있다. 지난 2000년 당시 온라인에서 농산물을 판매하는 사이트가 고작 8개에 불과했다는 것을 감안하면 비약적인 양적 성장을 한 것이다.

성공적인 e-비즈니스 사업모델을 운영하고 있는 농업인들은 ▲특색 있는 아이디어(판매 아이템) ▲많은 정보

화 교육 수강 ▲빠른 기술·정보력 ▲농산물 판매 외에 가공과 농촌체험 등 통한 부가치 향상 ▲빠른 소비자 마인드(트렌드) 변화 인지 등을 공통점으로 꼽는다.

특히 인터넷 쇼핑몰의 장점으로는 마케팅이나 유통비용이 오프라인보다 많이 들지 않고, 가격결정권이 농업인들에게 있어 재감반기에도 유리하다. 소비자들도 온라인을 통해 생생한 구매가 가능해짐에 따라 농산물에 대한 신뢰감을 높이는 효과가 동반한다.

전남도 농업기술원은 지난 2007년

부터 'e-비즈니스 리더 양성과정'을 개설, 농업인 40여명을 대상으로 연중 20회에 걸쳐 온라인 판매 성공전략과 소비자 트렌드 벤치마킹, 우수 농가 현장체험 등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대상은 30~60대로 과수·원예·채소 등 품목도 다양하다.

이와 함께 기술원은 전남도 우수 농산물을 품목별로 분류해놓은 '해피굿팜'(shop.goodfarm.net/)을 운영, 소비자들의 구매를 돕고 있다.

전남도 농업기술원 식품연구농업경영정보연구실 김덕현 박사는 “농산물의 전자상거래에서 농업인과 소비자간의 신뢰도와 공감대 형성이 가장 중요하다”며 “앞으로 농업기술에 경영과 정보기술을 접목해 농산물의 새로운 가치창출을 할 수 있는 사이버 농업인 육성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송기동기자 song@

함평 나비 또 한번 날다

축제 성공 다룬 '나비의 꿈' 서점가 화제

함평 나비축제의 성공스토리를 다룬 경제경영서 '나비의 꿈'이 '팁위크'와 '간절함'이라는 키워드로 서점가에서 연일 화제다.

출판사 쌤앤박스가 지난 4월 출간한 '나비의 꿈' (박성혁 지음)은 국내에서 가장 성공적인 축제로 꼽히고 있는 함평 나비축제의 탄생 배경과 성공하기까지의 과정을 담고 있다.

기업체들은 전 직원 필독도서 선정, 독후감대회, 나비의 꿈 워크숍 등을 열어 나비축제의 성공비결 벤치마킹에 나서고 있다.

'나비의 꿈'은 ▲안 되는 이유가 아니라 될 방법을

▲두려워 않는 조직문화 ▲축제 같은 아이디어 회의 ▲빠른 지적에 입에 쓴 보약 ▲적당히 잘이나 아니라 최고 중의 최고 등과 같은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함평군 관계자는 “무엇보다도 현장의 밥 냄새가 묻은 풍기는 리얼 스토리라는 점에서 막바지 경제위기의 타개책을 모색하고 있는 CEO들에게 용기를 주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함평=황은희기자 hwang@



해양의 꿈 미래로! 목포의 빛 세계로!

31일 목포 하당 평화광장서 해양문화축제

목포시 해양문화축제가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5일간 목포시 하당 평화광장 일원에서 열린다.

올해로 4회째인 이번 축제는 '해양의 꿈 미래로! 목포의 빛 세계로!'라는 주제로 해상 카니발을 비롯해 63가지 프로그램이 해상 주무대, 난장무대, 체험마당, 전시·판매마당, 특별행사 등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축제의 백미가 될 해상 카니발에서는 목포의 탄생과 과거·현재·미래의 모습을 주제로 장식한 배 위에서 무용과 음악, 공연을 연출한다.

타악 퍼포먼스와 해상 멀티미디어 쇼가 어우러진 개막식을 비롯해 '한

여름 밤의 꿈' 갈라쇼, 월드 서머페스티벌, 청소년 페스티벌, 해상 패션쇼, 목포 스타킹대회 등 다양한 공연도 진행된다. 또 목포 세일링대회와 전국 윈드서핑대회, 노깃기대회 등 다양한 체험행사가 마련되며 지역 대표 특산물과 추억의 먹거리, 전남 F1자동차대회 홍보전시관 등 기획전시 행사도 마련된다.

목포시 관계자는 “브라질의 리오 카니발처럼 몇 년 후에는 목포 앞바다에서 전 세계의 다양한 문화를 만날 수 있는 국제 해상카니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민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목포=임영춘기자 lyc@

도서지역 노약자 대상

보이스피싱 대처 교육

완도 12개 읍·면 파출소



완도경찰서(서장 김재석) 관내에서 전화 금융사기 피해 예방교육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

완도경찰서 군외파출소(소장 정광호)를 비롯해 12개 읍·면별 파출소에서 도서지역과 오지부락 노약자들을 대상으로 금융사기 전화가 걸려올 경우 대처법 등을 중점교육하고 있다.

군외파출소는 지난 21일 군외면 원동리에서 협력단체, 자율방범대원, 마을 주민 등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전화금융사기 예방 가드캠페인을 벌였다.(사진)

이날 파출소 직원들과 행사 참가자들은 전화 금융사기 예방 홍보전단을 주민들에게 나눠주고 안내방송을 실시했다.

이와 함께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발생하기 쉬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벨트 착용, 운전중 휴대폰 사용 금지 등도 홍보해 호응을 얻었다.

정광호 군외파출소장은 “지속적인 전화 금융사기 예방 교육을 실시해 주민들의 피해를 줄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에게 최상의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기자 ejchung@



“아토피 자연치유해요”

장흥 억불산 우드랜드서 '건강교실 헬스캠프'

장흥읍 억불산 우드랜드에서 열리는 '2009 아토피 건강교실 헬스캠프'의 호응도가 뜨겁다.

헬스캠프는 장흥군이 자치단체로는 처음 운영하는 아토피 등 도시 환경성 질환예방 및 재활 프로그램으로 한국환경 청소년연맹, 광주 생명의 숲과 공동으로 지난 25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8차례에 걸쳐 개최한다.(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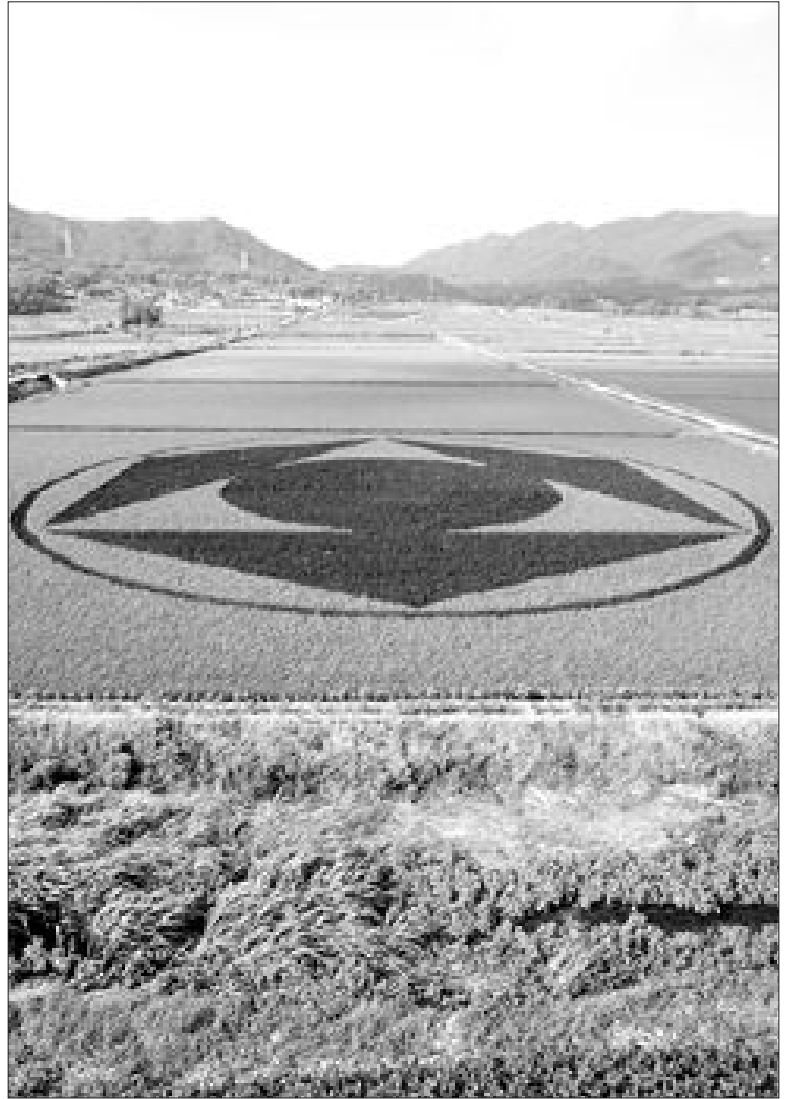
억불산 우드랜드에는 100ha의 편백나무 숲과 함께 목재문화 체험관, 숲치유 체험장, 향토 체험장, 산야초 시범포 등이 조성돼 있다. 40명 단위의 2박3일과 1박

2일로 진행되는 캠프는 아토피 예방과 식이요법, 편백체험, 편백 가습제, 기공체조, 원예치료, 천연염색, 목공예, 편백숲길 걷기 등으로 구성된다.

편백나무 숲에서 나오는 물질인 '피톤치드'(phytoncide)는 아토피 질환에 효능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은 정남진 물 축제와 연계해 우드랜드 아토피 재활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실행 프로그램으로, 환경성 질환자들에게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흥=김용기기자 kykim@



강진에 미스터리 서클(?)

최근 강진을 송덕리와 대구면 사당리 들녘에 이색적이고 기이한 문양이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강진군은 다음달 8일 열리는 청자 축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4월 일반면 사이에 붉은색의 벼를 일일이 심어 문양을 만들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l

새얼굴

“고향 발전위해 작은 힘 보탬 것”

임근기 화순부군수



“고향 발전을 위해 작은 힘이 모아 성심성의껏 보태겠습니다” 최근 취임한 임근기(57) 화순부군수는 “지역발전은 전적으로 공무원들의 노력 여부에 달려 있다”며 “지자체 간에 치열한 경쟁을 벌일 때일수록 공무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도전정신이 발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화순 출신인 임 부군수는 조선대를 졸업했으며 지난 1976년 화

순군청에서 공직에 첫 발을 내딛은 후 행정자치부 선거상황실장, 행정자치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운영지원과장, 전남도청 감사관 등을 역임했다.

가족으로는 부인 최경순씨와 사이에 2남1녀가 있다.취미는 등산. /화순=조성수기자 css@

Table with multiple columns listing land auction details for various counties in Jeonnam, including location, area, and price. Includes a header for '공인중개사: 강영희' and '0621364-8700'.